



With KAU Webzine

Fifth Steps

이륙허가! 창공 위, 당대한 항대인

새내기성공센터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새내기성공센터 2021-2 3중멘토 활동

흥미진진 MBTI 해석특강 "나도 너를 알고 싶어"	2
2021 새내기 리얼스토리 공모전 우수작 선정	3

재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이야기

A+LANE (airplane A+학점 합성)	4
TO BE COME TRUE (계획한 활동들이 실현되길 바라며)	6
나를 막아봐 (신입생의 패기와 나이 많은 멘티의 객기)	8
윤이 나는 사람들 (팀에 '윤'씨와 '이'씨밖에 없음)	10
드론 맘에 드롱 (새내기의 기대와 설렘을 그대로 간직하며)	12
ignite (새내기분들의 새 출발을 의미)	14
1 of 1 (우리는 각자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	15
붉은돼지들 (낭만을 꿈꾸는 로맨티스트들)	17
항공사랑 (항공대를 사랑하는 마음)	18
작은별 (작은 별들이 하나하나 모여)	20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아몬드	22
-----------	----

10월 웹진 퀴즈 이벤트

With KAU 웹진 퀴즈 풀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24
------------------------------------	----

새내기성공센터 11월 일정

이달의 행사 일정	26
-----------------	----

흥미진진 MBTI 해석특강

나도 너를 알고 싶어

나를 설명하는 MBTI 짤떡궁합은 ?



MBTI의 4가지 양극적 선호지표

E	외향 (Extraversion)		에너지 방향		내향 (Introversion)	I
S	감각 (Sensing)		인식기능		직관 (Intuition)	N
T	사고 (Thinking)		판단기능		감정 (Feeling)	F
J	판단 (Judging)		생활양식		인식 (Perceiving)	P

새내기성공센터에서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간 MBTI 심리 검사를 통한 멘토와 멘티 상호간 “나도 너를 알고 싶어” 특강을 진행하고 18개팀 96명이 참가하여 멘토와 멘티가 MBTI 검사를 실시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 특징과 상호 관계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멘토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새내기기는 “멘티들과 함께 서로의 성격유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친밀감 형성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다른 참여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점이 아쉬웠으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 멘토&멘티끼리 서로의 MBTI 결과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재미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강의를 진행해준 어세스타 류지나강사는 “검사 결과가 불만족스럽고, 더 정확한 결과를 원한다면 이번과 같이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종합적인 소견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모든 진로 검사는 참조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검사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 성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로를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마이어스(Myers)'와 '브릭스(Briggs)'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Carl Jung)'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이다. 'MBTI' 검사는 쉽고 간편하여, 학교·직장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검사를 통해, 각 성격유형에 어울리는 직업군 정보를 통하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2021 새내기 리얼스토리 공모전 우수작 선정



새내기성공센터는 새내기들의 대학 입학 후 변화된 일상 속 현실 이야기를 나누고자 2021 여름방학 리얼스토리(일상스토리, 멘토링스토리) 공모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 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새내기 리얼스토리는 에세이와 카드뉴스, 동영상 등 각 부문별 새내기들의 여름방학 기간 중 자신만의 휴식을 즐기면서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낸 스토리와 3중 멘토활동을 통해 나누는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담은 스토리를 공모했다.

이번 공모전은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6일부터 9월26일까지 공모가 진행됐으며 센터 자체 심사를 통해 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작은 리얼스토리 모음집을 제작하여 온라인 웹진 형태로 홈페이지 및 센터 SNS에 게재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새내기 리얼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활기찬 대학생활 문화 조성 and 뜻깊은 방학생활의 모습을 공유하여 멘토링 활동의 지속적 활동을 유지하고 3중멘토링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A+LANE”
A+LANE 팀은 비행기의 airplane에 A+학점을 합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만남.

3월



4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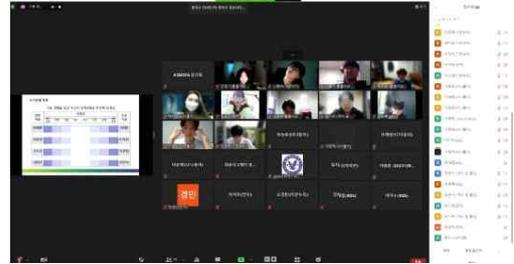
▣ A+LANE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도와주고 나만의 공부법 전수
- ☆ 새로운 학우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줌
- ☆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힘이 되어줌

- ▣ 새내기들을 위해 INTRO MISSION을 만들어 학교 건물을 탐방하고 사진을 찍어서 학교에서 주는 상품을 수령 하였으며 참여한 멘티들과 친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A+LANE”
 A+LANE 팀은 비행기의 airplane에 A+학점을 합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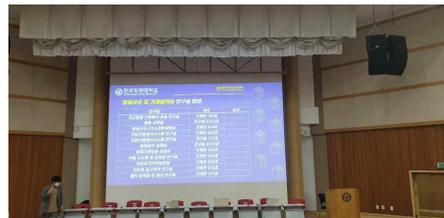
우리활동



5월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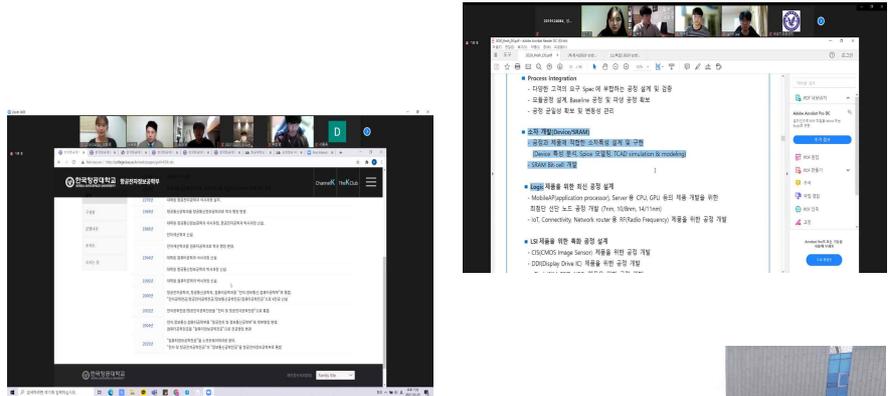
우리 뭐하지?

- 대면으로 새내기들과 만나서 학교생활 이야기를 나누며 중간고사 시험 꿀팁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갖음.
- 새내기들에게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항공기 연구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제공
- 흥미진진 프로그램 STRONG 직업흥미검사, CST 성격강점검사를 모두 참여하여 대면으로 진행하는 진로가치관카드검사를 연합멘토링으로 진행
- 기말고사가 끝난 뒤 남은 활동비를 이용하여 시원한 커피 1잔씩 멘티들과 나누고 입영을 하는 멘티에게 입영선물(치킨)을 나누며 한학기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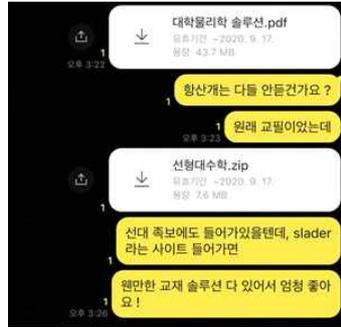
항공전자정보공학부 “TO BE COME TRUE”

멘티들이 원하는 활동들과 계획한 활동들이 실현되길 바라며, to be come true라고 지었습니다.

첫 만남.



3월



5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TO BE COME TRUE

- ☆ 멘티들이 비대면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 ▣ 지도교수 간담회와 외부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학부의 강점을 안내하고 진로를 위한 준비과정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멘티들에게 필요한 족보와 솔루션 정보를 제공하고 멘티들의 1학기 시간표를 봐주는 시간을 가졌다.
- ▣ 학교 풋살장에서 다른 멘토팀들과 이야기하여, 멘티들끼리 풋살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종료 후 식사를 하며 친목 도모

항공전자정보공학부 “TO BE COME TRUE”

멘티들이 원하는 활동들과 계획한 활동들이 실현되길 바라며, to be come true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활동.



5월

7월



우리 뭐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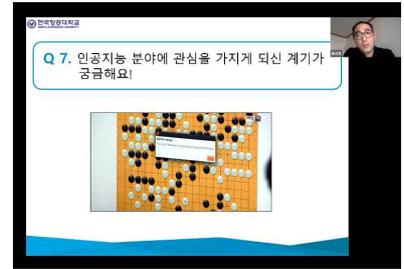
- [연합멘토링] 학교 풋살장에서 다른 멘토팀들과 일정을 확인하고, 멘티들끼리 풋살을 하도록 2차 풋살전을 마련했다. 끝나고 식사를 하며 친목 도모할 수 있게 시간을 준비했다.
- “멘토와 멘티가 처음 만난 날” 멘티가 원하던 맛집 탐방을 하며 멘토와 멘티의 친목 도모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 말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 지도교수 간담회 및 전문가 멘토 프로그램에서 참여도가 가장 좋은 멘티에게 기프티콘 선물

소프트웨어학과 “나를 막아봐”

신입생들의 패기와 나이 많은 멘티의 객기가 녹아있는 팀명입니다.

첫 만남.

3월



5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나를 막아봐

- ☆ 다양한 전공 관련 체험을 통한 학과에 흥미 유도
- ☆ 멘티에서 멘토가 될 수 있는 성장과정 안내

▣ 외부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학과에 대한 흥미를 붙이기 위한 방법과, 방학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 대학생활 중 준비하면 좋은 것 등 신입생에게 필요한 내용 뿐 아니라, 요즘 개발 트렌드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등의 진로정보 탐색기회 제공

▣ 지교수수 간담회에서는 신입생과 지도교수님간의 동질감을 형성해 주셨으며, 교수님과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신입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학교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소프트웨어학과 “나를 막아봐”

신입생들의 패기와 나이 많은 멘티의 객기가 녹아있는 팀명입니다.

우리활동

]

5월



6월

]



우리 뭐하지?

-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의 꿀팁을 전수하고 1학년 재학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놀아본 경험을 전수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4개조로 나누어 진행 함
- 온택트 ICE Breaking을 위한 조세희멘토 골든벨을 개최하여 항공대 알짜정보와 대학의 문화를 전달하고 재미있는 항공상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친목의 기회 제공
- Python 과목을 들으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python 과제를 해결하는데 수월하게 진행하였으며 시험기간 study with me 온라인 환경에서 개최, 의지를 강하게 다지면 함께 학업 수행함.

신소재공학과 “윤이 나는 사람들”

팀에 ‘윤’씨와 ‘이’씨밖에 없음. 실제로 우린 윤이 나는 사람들이다 <>

첫 만남.



] 3월
5월 [

팀명

활동목적

▣ 윤이나는 사람들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티들간의 우애 형성, 단합력 기르기
- ☆ 성공적인 새내기 생활을 위한 비대면 코칭
- ☆ 한 학기를 돌아봤을 때 뿌듯한 기분이 들게 하기

우리 뭐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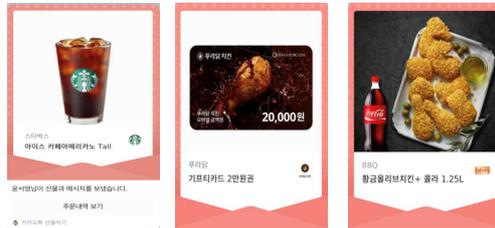
- ▣ 학식을 나누며 학교를 탐방하고 한강으로 이동하여 나들이를 즐기며 멘토, 멘티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짐.
- ▣ 대학 기숙사에 있는 새내기들과 친목의 시간을 갖고 한강 나들이를 통해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짐 이를 계기로 기숙사에 있는 멘티들과 더욱 많은 교류를 하게 됨 (모든 활동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활동 진행)

신소재공학과 “윤이 나는 사람들”

팀에 ‘윤’씨와 ‘이’씨밖에 없음. 실제로 우린 윤이 나는 사람들이다 >

우리활동.

5월
7월



우리 뭐하지?

- 한 달에 한 번 시간이 되는 멘티들과 함께 비대면 미팅을 하여 친밀감을 유지하고, 중간중간 깜짝 선물을 증정하여 참여율을 높임. 학교 관련 정보, 과목 관련 정보 등 유용한 정보 공유
-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각자 집에서 팀즈를 켜놓고 각자 공부함. 서로의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고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 출석을 이용해 상품 증정함.
- 취미가 같은 멘티와 함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가짐. 같은 취미를 가진 멘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밀감이 증가함. 21학번의 다른 후배의 소식도 전해들으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짐.
-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멘티에게 선물 증정

스마트드론공학과 “드론 맘에 드롱”

드론을 사랑한 친구들이 스마트드론공학과에 입학하고 새내기들의 기대와 설렘을 그대로 간직하여 각자의 꿈을 펼치라는 뜻

첫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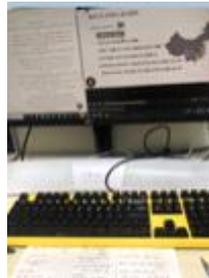
]

3월



[

4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드론 맘에 드롱

- ☆ 소규모 캠퍼스활동으로 새내기들의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선 후배 간의 끈끈한 우정을 쌓음
- ☆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
- ▣ 외부전문가 멘토 간담회를 통하여 드론 탑재 센서와 자율 비행의 고도화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취미용 드론에서 산업용 드론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함
- ▣ 지루한 온라인 수업을 벗어나 친목 도모 활동으로 한강에서 조를 나눠 음식을 먹으며 첫 대면 기말고사를 앞두고 정보 공유하는 시간, 안부 나누기 등 친목을 도모함

스마트드론공학과 “드론 맘에 드롱”

드론을 사랑한 친구들이 스마트드론공학과에 입학하고 새내기들의 기대와 설렘을 그대로 간직하여 각자의 꿈을 펼치라는 뜻

우리활동.

5월



6월



우리 뭐하지?

- 시험기간에 혼자가 아닌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시험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짐.
-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진행한 전공데이 행사에 참가하고 다양한 내용을 배워서 확실히 시야가 넓어진 것을 확인하고 행사 끝난 후 모두가 캠퍼스에 모인 기념으로 학교 카페에서 음료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 함
- 한 학기동안 조금이나마 멘티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게 되어 기뻐요. 멘티들의 활동 참여율도 높고 멘토에게 어려움 없이 다가와 줘서 고마웠고 같은 과가 아니라 많은 도움을 주진 못했지만 학기를 마무리하며 친밀한 사이가 되어 좋았음.

공학계열 “ignite(이그나이트) ”

새내기분들의 새 출발을 의미하고 멘티분들의 의지를 점화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ignite(이그나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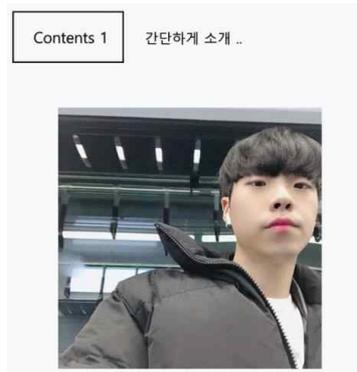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하여 시간관리 노하우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새내기들과 대학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소모임을 통하여 비대면/대면 회식하고 시험기간의 스트레스를 비대면/대면 회식으로 다 함께 모여 시간 보내면서 해소 함.
- 대학생이 되고 난 후 첫 여름방학 시원하고 알차게 보내기 이벤트를 통하여 멘티들에게 기프티콘를 제공하고 각자 여름방학 계획을 알차게 수립할 수 있도록 응원 함.

항공교통물류학부 “1 of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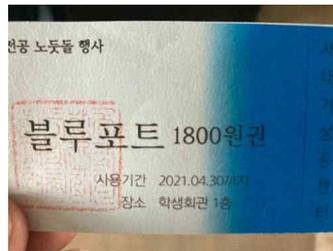
하나 중의 하나. 이 세상속 우리는 각자 유일한 존재이며 우리는 각자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이다.

첫 만남.

3월



4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1 of 1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한 정보 제공
 - ☆ 새내기들의 진로 설정에 도움 제공
- 멘토와 멘티간의 첫 만남이자 서로 어색함을 풀기 위해 비대면 모임을 가졌으며 각자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요소들에 대해 얘기해 보고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 Q&A 하는 시간을 가졌음
- 노드돌 행사 및 전공데이 참여를 통해 캠퍼스를 탐방해보고 항공교통물류학부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심화탐색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내 시설 및 항공교통관제교육원 등의 곳곳을 탐방하며 새내기들의 캠퍼스 적응을 도모함.

항공교통물류학부 “1 of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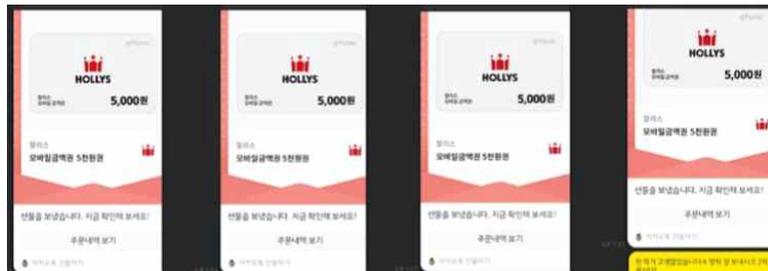
하나 중의 하나. 이 세상속 우리는 각자 유일한 존재이며 우리는 각자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이다.

우리활동.

5월



7월



우리 뭐하지?

- 코로나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모임 가능한 인원들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단한 식사 및 회식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타 조의 멘토 & 멘티와 연합하여 시간을 보낼 기회를 제공하여 인적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함
- 2학기 재학 및 멘토링 활동 계획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 하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새내기들에게 안녕 멘토링 이벤트를 진행 하고 2학기에도 이어서 멘토링 활동을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카페 기프티콘을 증정 하며 2학기 활동계획을 논의 함

항공운항학과 “붉은돼지들”

영화 붉은 돼지에서 '파일럿들은 낭만을 꿈꾸는 로맨티스트들'이라는 구절이 인상깊어 이와 같은 팀명을 짓게 됨

첫 만남과 우리활동.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붉은돼지들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참여
 - ☆ 항공운항학과 진로탐색
- ▣ 외부전문가멘토 간담회를 진행하며 항공운항학과의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를 오프라인으로 가졌으며, 이후 다 같이 줌으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서로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외우는 시간을 가졌고 학교생활에 관련된 질문들을 받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짐.
- ▣ 코로나로 인해 기존 계획서에 작성된 여러 활동들을 하지 못하였으나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줌 스터디룸을 만들어 함께 공부를 하였고 가장 열심히 공부한 3인을 뽑아 종강 후 맛있는 식사를 진행함 (3인의 기준은 참여횟수, 공부시간)

자유전공학부 “항공사랑”

항공사랑팀은 항공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

첫 만남



3월
6월

팀명

활동목적

우리 뭐하지?

▣ 항공사랑

- ☆ 새내기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친목도모
- ☆ 다양한 전공의 선배들을 만나보며 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 ▣ 화전역에서 고기 회식 :) 학교에 있는 건물들을 소개해 주고 화전역 청춘상회에서 고기 회식을 하며 친목을 도모했으며 기숙사에 사는 멘티들과 함께 화전역 1번 출구의 먹거리를 소개시켜 주고 가장 맛집인 용호동 주꾸미에서 주삼 회식을 하며 학교정보를 공유함.

자유전공학부 “항공사랑”

항공사랑팀은 항공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

우리 활동.

4월



6월



우리 뭐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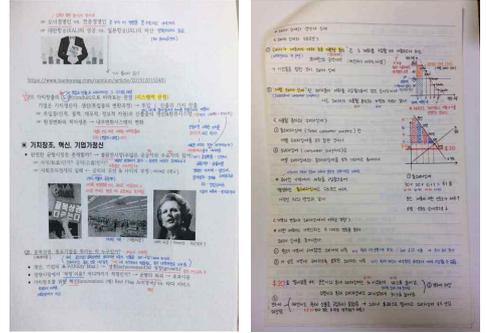
- 한강 단합대회 이벤트를 열어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멘티 4명과 함께 닭꼬치와 치킨을 먹으며 서울의 야경을 구경을 하면서 전문가멘토, 지도교수 간담회를 위한 사전질문도 나누며 대학생 활 중 궁금한 점을 하나씩 해결하는 시간을 가짐
- 단합 석식 일정을 상호 의견하고 멘티 2명과 함께 행신역 주위에 놀거리를 추천해주고 함께 피자파티를 진행함.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멘토링을 통하여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 조언을 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며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짐.

경영학부 “작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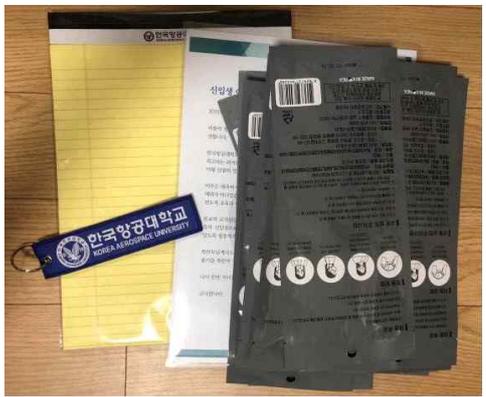
작은 별 팀은 작은 별들이 하나하나 모여 까만 밤하늘을 예쁘고 밝게 이루는 것처럼, 팀 구성원 모두 함께 의미 있고 보람찬 활동을 하면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해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첫 만남.

3월



4월



팀명 활동목적

▣ 작은별

- ☆ 재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멘티들에게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 참여 독려 (역량강화시스템, 새내기성공센터, 일자리센터 등)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와 멘티 간의 우애 형성하기

우리 뭐하지?

- ▣ [새내기 열공 지원 프로젝트] 새내기들이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과목들에 대해 어떻게 공부 방향성을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과 함께 대학생활에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음
- ▣ [KAU인트로 미션 수행]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주관하는 2021 새내기 KAU 인트로 활용 미션을 멘티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학기 초반 내적 친문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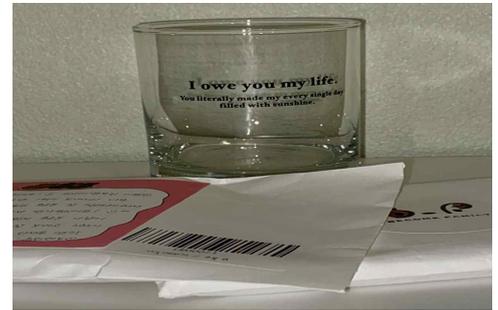
경영학부 “작은별”

작은 별 팀은 작은 별들이 하나하나 모여 까만 밤하늘을 예쁘고 밝게 이루는 것처럼, 팀 구성원 모두 함께 의미 있고 보람찬 활동을 하면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해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우리활동

5월

7월



- [MBTI]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MBTI 검사를 활용한 집단 상담을 통해, 멘토와 멘티 각 개인의 성격유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멘토링 팀 별 그룹 활동을 진행하여 팀의 친밀도도 증진시킬 수 있었던 활동이었음
- [기부 및 후원 활동] 투표를 취합하여 비컴패밀리 (유기견을 위한 기부·후원활동), 88HADA (해양생태계 보존 기부활동) 두 곳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나눔의 의미를 생각하고 정을 느낄 수 있었다.
- [슬기로운여름나기 프로젝트] 멘티들의 슬기로운 여름방학 생활을 응원하고 새내기로서 보낸 첫 한 학기 동안 고생했다는 취지로 진행 (멘토가 멘티들에게 개인적으로 기프티콘 전달)

우리 뭐하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영화보다 강렬하고 드라마처럼 팽팽한, 흥미로운 소설이 우리 앞에 도착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지는 흡인력 강한 작품이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진 ‘공감 불능’인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소설로, 작품 속 인물들이 타인과 관계 맺고 슬픔에 공감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탁월하게 묘사했다.



감 불능 사회, 차가움을 녹이는 아몬드 “고통과 공감의 능력을 깨우치게 할 강력한 소설” 영화보다 강렬하고 드라마처럼 팽팽한, 흥미로운 소설이 우리 앞에 도착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지는 흡인력 강한 작품이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진 ‘공감 불능’인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소설로, 작품 속 인물들이 타인과 관계 맺고 슬픔에 공감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탁월하게 묘사했다.

영화처럼 펼쳐지는 극적인 사건과 매혹적인 문체로 독자를 단숨에 사로잡을 것이다. 『완득이』 『위저드 베이커리』를 잇는 제10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아몬드』의 주인공 ‘윤재’는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 독특한 캐릭터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이면을 읽어 내지 못하고 공포도 분노도 잘 느끼지 못하는 윤재는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가까스로 버텨 오고 있다. 엄마에게서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호의를 보이면 고맙다고 말하는 식의 ‘주입식’ 감정 교육을 받기도 한다. 세상을 곧이곧대로만 보는 아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받던 윤재는 어느 날 비극적인 사건을 맞아 가족을 잃게 되면서 이 세상에 홀로 남는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윤재 곁에 새로운 인연이 다가온다. 어두운 상처를 간직한 아이 ‘곤이’나 그와 반대로 맑은 감성을 지닌 아이 ‘도라’, 윤재를 돕고 싶어 하는 ‘심 박사’ 등이 그러한 인물들이다.

윤재와 이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에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소설가 공선옥은 이 작품을 일컬어 “가슴이 머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소설”이라고 평했으며, “어쩌면 현대라는 사회가 집단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상실을 애도할 시간, 감정을 보듬을 여유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독자들은 윤재를 응원하면서 자신의 마음 또한 되돌아볼 기회를 얻을 것이다.

윤재의 덩덤한 어조는 역설적으로 읽는 이의 가슴을 더욱 슬프게 저미며,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 깊고 진실한 감정의 고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보다 강렬한, 드라마처럼 팽팽한 한국형 영어덜트 소설의 탄생! 출판평론가 한기호는 『아몬드』를 ‘한국형 영어덜트 소설’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평했다. 영어덜트(Young Adult) 소설이라 하면 『메이즈 러너』나 『헝거 게임』 등 환상성과 장르성이 전면에 드러난 작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 들어 로맨스를 비롯해 더욱 다양한 계열의 서사로 확장되고 있다. 영어덜트 문학은 배경이 되는 삶의 공간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보다 극단적이고 기묘하게 설정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은유하며, 독자들에게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결핍이나 상처가 있는 주인공들이 그 세계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성장한다는 영어덜트 문학의 기본적인 설정은 10대부

터 30대까지 영어덜트 독자들을 매료하는 요소이다. 『아몬드』 또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놓인 10대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균열을 드러낸다. 그와 동시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서로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지, 희망을 전해 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실험한다.

새롭고 독특한 서사 안에 ‘공감의 상실’이라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녹여 내면서 문학적 감동을 전하는 『아몬드』는 ‘사회파’ 영 어덜트 소설의 탄생이라 할 만한 작품이다. 매혹적인 문체, 독특한 캐릭터, 속도감 넘치는 전개! 독자의 마음을 감동으로 채워 줄 이야기꾼의 등장 손원평 작가는 그동안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 「너의 의미」 등 다수의 단편영화 각본을 쓰고 연출해 왔으며, 첫 장편소설 『아몬드』로 제10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또 다른 장편 원고 『1988년생』으로 “사건과 주제를 형상화시키는 작가의 힘, 소설미학이 돋보인다”는 평을 얻으며 제5회 제주4·3평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아몬드』는 “캐릭터의 매력과 깊은 성찰로 빛어낸 두 인물의 관계에 깃든 아름다움에서 터 30대까지 영어덜트 독자들을 매료하는 요소이다.

『아몬드』 또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놓인 10대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균열을 드러낸다. 그와 동시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서로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지, 희망을 전해 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실험한다. 새롭고 독특한 서사 안에 ‘공감의 상실’이라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녹여 내면서 문학적 감동을 전하는 『아몬드』는 ‘사회파’ 영 어덜트 소설의 탄생이라 할 만한 작품이다. 매혹적인 문체, 독특한 캐릭터, 속도감 넘치는 전개! 독자의 마음을 감동으로 채워 줄 이야기꾼의 등장 손원평 작가는 그동안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 「너의 의미」 등 다수의 단편영화 각본을 쓰고 연출해 왔으며, 첫 장편소설 『아몬드』로 제10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또 다른 장편 원고 『1988년생』으로 “사건과 주제를

형상화시키는 작가의 힘, 소설미학이 돋보인다”는 평을 얻으며 제5회 제주4·3평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아몬드』는 “캐릭터의 매력과 깊은 성찰로 빛어낸 두 인물의 관계에 깃든 아름다움에서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었다”는 평을 얻었으며, 네이버 사전 연재에서 회당 1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독자들과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다. 구체적인 이미지가 손에 잡힐 듯 그려지며 눈을 떼지 못하고 순식간에 읽었다는 많은 독자 리뷰에서 알 수 있듯, 매혹적인 문체와 독특한 캐릭터, 속도감 넘치는 전개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새로운 서사에 목말라 하는 한국소설 독자들에게 신선한 매력과 감동으로 다가갈 작품이다.





10월 웹진 퀴즈 EVENT

Q. 대학내 의료지원실에서는 간단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료지원실이 위치한 교내 건물 이름은?

참여방법

메일송부 (kaussc@kau.ac.kr)
인적사항은 학번+성명+핸드폰번호

응모기간

2021.11.01 ~ 11.20

당첨자선물

정답자 추첨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당첨자발표

With KAU 6호 (11.25)



KAU 웹진 퀴즈
이벤트 해요

9월 웹진 퀴즈 EVENT

당첨자

**A. 에어버스(Airbus) A300-600
또는 A300-600**

2021****36 김○수

2021****91 최○나

2021****40 이○혁

2016****55 이○엽

2019****38 박○현



※ 제출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2021년 11 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lan	1 Plan 2021 KAU 새 내기 자랑 공모 전 접수~11.26	2 Plan	3 Plan	4 Plan	5 Plan	6 Plan
7 Plan	8 Plan	9 Plan	10 Plan	11 Plan	12 Plan	13 Plan 온라인게임대회
14 Plan	15 Plan	16 Plan	17 Plan	18 Plan	19 Plan	20 Plan 온라인게임대회
21 Plan	22 Plan	23 Plan	24 Plan	25 Plan	26 Plan	27 Plan
28 Plan	29 Plan 멘토링 활동 뽐내기 공모전 접수 ~12.30	30 Plan				



[새내기성공센터 유튜브 채널]

Follow

us:

<http://fsc.kau.ac.kr>

now

O N L I N 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

